

국제유사학회 참가기

윤 세 의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인도에 도착〉

인도 뉴델리에서 제6차 국제유사학회(6th International Symposium River Sedimentation)가 95년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열릴 예정이라는 편지를 받은 것이 94년 5월 중순쯤으로 기억된다. 내심 이 학회참가가 인도를 방문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술진흥재단에서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비를 받고 나서야 인도여행에 필요한 지식들을 알리고 노력하였다. 인도는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음식문화가 독특한 등등…… 여행하기가 꽤 고생스러운 나라라고 주위 사람들이 말해 주었다. 그래서 인도에 갈 준비를 하나 하나 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많이 되었다. 다만 혼자가 아니라 이종태 교수와 동행한다는 점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논문발표 후 현장방문 기간이 6일간이라 봄베이에서 18일 서울로 오는 비행기표를 미리 사가지고 김포를 떠나 방콕을 경유하여 델리에 도착하였다. 공항에 내리니 인도 특유의 냄새가 코를 자극하였다. 공항을 벗어난 시간이 새벽 한 시였다. 공항주변의 풍경은 우리나라의 고속버스 정류장을 연상시켰다. 밤이어서 인지 공항입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과 호객하는 택시운전자들만이 눈에 띄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택시운

전사가 부르는 가격의 1/3을 과감히 에누리하였다. 인도 여행에서는 바가지를 쓰기 쉽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택시비를 에누리한 것이다. 350루피를 주고 약 30분 정도 달리니, 예약된 호텔, '카니시카'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귀국시 공항까지 택시비는 200루피를 주었다. 인도돈 1루피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원이다. 인도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하루 호텔비가 100달러였으므로 좋은 호텔이라 짐작했는데, 그 기대가 허물어지고 말았다. 피곤해서인지 잠을 청하였으나, 몇 번이고 눈이 떠졌다.

다음날 아침 일찍 식사를 하려고, 학술발표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 '홀리데이 인 크라운 프라자' 호텔로 향하였다. 오토릭샤(오토바이가 끄는 조그마한 삼륜차)를 타고 거리를 달리니 눈이 매울 정도로 매연이 자욱하였다. 이 호텔은 고급 호텔인 듯하였다. 등록을 마치고, 한국에서 오신 분을 찾아보려고 참가자 명단을 보았더니 우리 둘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현듯 변변치 못한 학회에 참가비만 내고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이런 의구심은 논문 발표집을 보고서야 사라졌다. 필자가 아이오와 대학에 방문교수로 있을 때 도움을 많이 준 A.J. Adgaard를 만나 반가웠고 회의 기간 중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학술회의 규모〉

이 학회는 Central Board of Irrigation and Power(CBIP)에서 주관하고,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on Erosion and Sedimentation과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ydraulic Research에서 후원하였다. 참가자 수는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러시아, 프랑스, 미국, 유고슬라비아 등 27개국에서 약 300명 정도이며, 특히 중국에서 24명이 참가하여 눈길을 끌었다. CBIP는 1927년에 설립된 인도의 수자원과 수력발전을 총괄하는 연구기관으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ADVANCEMENT OF KNOWLEDGE & TECHNOLOGICAL FORECASTING

- Collection and Compilation of Data
- Pool the Technical knowledge and Experiences
- Dissemination of information-Library & Information Services
- Organizing Workshops, Symposia, Seminars, Conferences, Conventions etc.
- Awards

2) RESEARCH

- identifying Research Needs
- Sponsoring Research Projects
- Monitoring the R & D Activities
- Assisting in Specific Case Study/Problems
- Documentation

3) INSTITUTIONS / COMMITTEES / ORGANIZATIONS

- Establishing Contact
- Exchange of Information & Publication
- Functioning as Indian Committees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4) CONSULTANCY

- Maintaining Panel of Experts/Consultants
- Locate Experts for Specific Projects/works
- Providing Information to member organi-

zation in country

5) PUBLICATIONS

- Research Project reports
- Technical Literatures
- Journals
- Basic Research & Applied Research
- Design Construction & Management Publications
- Specifications/Manuals/Guidelines
- Specific Case Studies

〈학술발표 논문〉

개회식 후 TAN YING이 'River Sedimentation and flood in China'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재 중국에서 홍수방제를 위해 건설 중인 Xiaolangdi Project와 Three Gorges project에 관한 것이었다. 발표된 총 114편의 논문은 크게 여섯개 주요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논문 편수(괄호 안의 숫자)는 아래와 같다.

1) sediment management in reservoir

- remote sensing applications(5)
- measurements(5)
- watershed development, geology and coordinate activities(4)
- protections, remed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4)
- reservoir sedimentation(7)

2) river morphology

- bed load studies(11)
- suspended sediments(2)
- sediment sources and characteristics(3)
- river equilibrium, morphology and remote sensing(7)
- process mechanics(5)

3) modelling methodologies

- catchments(7)
- system method(3)

- laboratory studies(10)
- routing and bed forms(4)
- cohesive sediments(1)
- remote sensing and traces(2)
- morphology(3)
- river train(1)
- canals(3)
- reservoir sedimentation and management (4)
- 4) hydraulic structure-scouring and deposition control
 - mechanics(4)
 - metrology(4)
 - protection(3)
 - deposition(1)
 - experiment(4)
- 5) economics aspects of sediment management (1)
- 6) Environmental aspects of sediment management (6)

〈학술발표 일정〉

필자의 발표 차례는 마지막날 오전이라 남들이 어떻게 발표하는 지를 유심히 지켜볼 수 있었다. 첫날 오후에는 저수지에서 유사관리방법 중 원격탐사방법을 응용한 논문 다섯 편이 발표되었는데, 발표자는 대부분 인도학자들이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유사관리에 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된 것을 보고, 인도가 비록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떨어지지만 과학에 대한 투자의지가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것 같았다. 그리고 유사량 측정·유역개발시 유사문제·저수지퇴사의 대책 등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되었다.

저녁 때, 학회에서 준비해 놓은 버스를 타고 문화행사가 열리기로 예정된 국립극장으로 향하였다. 인도에서는 고급수준의 버스였지만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 무척 더웠다. 우리나라 70년대 좌석버스 수준 정도였다. 델리 시내에 있

는 승용차와 택시는 대부분 오래되어 낡은 것들이었다. 국립극장에 도착하여 인도무용단들의 전통무용과 음악 공연을 약 한 시간 반 정도 관람하였다. 그네들의 춤사위와 노랫가락은 동양적이면서도 서양적인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짐작건대 서양사람들은 동양적으로, 동양사람들은 서양적으로 느꼈으리라.

수요일은 하루종일 논문발표가 있는 날이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질문과 토의에 열중하였다. 오전·오후에 한 번씩 커피타임이 있었지만, 영어실력이 짧은 필자에게는 좀 지루하게 느껴졌다. 인도사람들의 영어발음은 듣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한 번은 인도 발표자의 영어발음을 미국 참가자가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pardon을 연발하였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필자는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저녁 때 식사를 마치고 시내 구경을 나갔다. 시내에는 돈을 구걸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았다. 신호등 때문에 교차로에 잠시 서있으면 달려와 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인도에는 거지가 많다는 말을 들었지만, 직접 인도에 와서 보니 실감이 났다. 인도거지들은 돈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떳떳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돈 준 사람은 적선할 기회를 제공해준 거지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세에 적선을 하면서 살면 내세에 극락으로 가기 때문이란단다. 그래서 부에 대한 열망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 덜한 것 같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인도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인도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지 않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일 것이다. 새삼 모든 가치기준이 금전과 결부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부끄럽게 여겨졌다.

델리 시내에서 술집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술을 사려면 차를 타고 가서 사야 할만큼 술과는 가계가 드물었다. 다만 호텔 내에 간이주점 비슷한 것이 있을 뿐이었다. 이 점 또한 어디에서나 술을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와는 다르다. 그들의 삶이 종교적인 점을 미루어 보전대, 술을 먹는 것보다 신을 섬기는 것이 그네들의 즐거움이 아닐까 한다.

〈타지마할 방문〉

목요일은 논문 발표는 없고 하루종일 타지마할 궁전을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오전 7시에 호텔 앞에 도착한다는 버스가 8시가 다 되어 도착하였다. 인도의 시골 풍경을 보고 싶었던차에 교외로 나오니 우선 매연이 없어서 기분이 상쾌했다. 델리의 외곽 지역은 거의 산이 없고 구릉지여서 농사짓기에 적당한 토양이었다. 타지마할 궁전은 무굴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던 왕비 무타즈 마할을 위해 만든 무덤이다. 세계각지에서 귀한 돌을 수집하고 기술자들을 모집하여 22년이라는 세월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1653년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낮에는 그 거대함에 보는 사람들을 숨죽이게 하던 타지마할도 밤이 되면 환상속의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한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 밝은 달빛 아래 드러나는 타지마할의 자태는 현세에는 다시 없을 것 같은 불가사의함마저 느끼게 한다고 한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고, 궁전이 매우 기하학적이고 대칭적이며 섬세하였다. 궁전 전체가 하나의 예술조각품이었다. 타지마할의 엄청난 아름다움에 앞에서 뉘이 나갈 정도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궁전을 짓느라고 애썼던 사람들이 과연 자진해서 땀방울을 흘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무튼 이 거대한 타지마할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일주일의 소요된다고 한다. 주마간산 격으로 구경한 필자가 타지마할에 대해 더이상 말한다는 것은 실례를 범하는 것이리라. 인도를 제대로 구경하려고 다시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수궁이 간다. 타지마할에서 기념사진 몇 장 찍고, 레드포트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일정계획표 보다 몇 시간 늦었는데도 버스를 기념품가게 세워놓고서는 물건 팔기에 열중하니 더욱 늦을 수밖에 없

었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보다 장사에 재질이 더 많은 것 같았다. 게다가 델리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 시간동안 지체하다보니 호텔에 도착한 시간이 거의 밤 12시였다. 델리에서 타지마할 궁전까지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인데, 고속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거의 4시간이 소요되었다.

〈올드 델리〉

금요일 오전에 유사수치모형에 관한 논문들의 발표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수중보에 쌓인 모래를 싸이폰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 SAF 감쇠지의 하류부에 세굴규모 예측방법 등의 논문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후에는 학회 사무국에 시내관광을 신청하였다. 승용차는 학회에서 제공하였고, 안내자는 뉴델리 대학 역사과 박사과정에 있는 인도 대학생이었다. 그는 인도 북부 부호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고,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 관심이 있는 듯이, 대통령 비자금사건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의 안내로 국립박물관, 현대 미술관, 올드델리를 방문하였다. 델리는 뉴델리와 올드델리로 구분되는데 뉴델리는 관공서, 호텔, 박물관 등이 많아서 거리가 깨끗하고 비교적 정돈된 지역이고 올드 델리는 시장,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지역이다. 국립박물관에는 정교한 조각품이 많았고, 특히 여러 종류의 불상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런데 보존상태나 관리 방법은 아직 미숙한 듯이 보였다. 올드델리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건설되었다고 한다. 사람이 끄는 인력거(릭샤)를 타고 올드델리 재래시장골목을 한시간 정도 누볐다. 상점을 구경하는데 리ك샤가 사람을 차이나 앉을까 근심하랴, 오래된 건물을 볼라, 인력거군의 설명을 들으랴 정신이 없었다. 400년전에 이러한 상권이 형성되었다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스크 차마 마스지드를 방문하였다. 이 모스크의 둠과 높은 철탑은 붉은 성벽과 함께 무굴시대의

텔리를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한다. 붉은 사암과 대리석이 잘 조화돼 있어 아름다웠고, 까치와 비슷한 새가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넓은 경내는 성지 메카를 향한 이슬람교도의 예배가 거행되는 성역이라 한다.

그리고 라지카트를 방문하였다. 그 곳은 비폭력의 저항을 보여주며 인도독립운동을 이끈 간디를 추모하는 성소이다. 인도사람들의 경건하게 참배하는 모습을 보며 간디가 인도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꼈다. 호텔에 들어오기 전에 거리에서 물을 10루피 주고 샀다. 호텔에서는 지금까지 100루피씩 주고 사먹었다. 정말 바가지는 대단했다. 해질 무렵에 뉴델리대학을 방문하였다. 캠퍼스는 매우 넓었지만 건물들이 대부분 낡았다. 사정상 캠퍼스를 두루 구경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마지막날 오전에 필자는 “mound effects on jet scour”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발표를 마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었는데, 현장 방문 일정이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당

황하였다. 취소가 될 것 같으면 빨리 알려 줄 것이지 몇 번이나 물어보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대답하더니 마지막 날에 알려주다니…… 짧은 영어로 화를 내고, 이교수와 상의하여 결국 비행기표를 바꾸어 곧바로 서울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원래는 현장방문을 마치고 Bombay에서 귀국할 계획이었다. 인도항공회사로 직접 가서 비행기표를 바꾸어 일요일 새벽 한시 홍콩행 비행기를 탔다. 홍콩에서 하루를 묶어야 되는 비행기표를 가지고 공항에서 기다리다 12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다음 기회에 한 번 인도를 제대로 여행하고 싶다. 인도는 후진국이긴 하지만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얼핏보면 혼돈 그 자체이지만 단지 며칠 머무른 외국인의 눈으로는 파악해 낼 수 없는 그들만의 어떤 질서가 있는 듯하였다. 인도를 가 본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무질서 속에 질서’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겠다.